

저는 우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라든가 일을 할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방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담배보다는 잠자는 것이 더 좋아서 아직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담배는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부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담배 연기는 정말 싫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건강에 나쁜 것입니다. 담배 연기에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담배연기에 약하기때문에 좀더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즘은 TV 든가 방송이나 영화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모두가 멋지게 보여서 청년들이 그것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담배 피우는 것도 타인을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의 생각에 맡기는 편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칙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리가 없기도하고 좀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